

기고

강 순 팔 화순군의회 의장



바로 있을 것이 바로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이슈는 미세먼지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7%)'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14%)'에 진입하였고, 통계청은 2025년 '초고령사회(25%)'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1만5천39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발빠른 준비와 대처가 절실하다.

현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할 때에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가진 반납하는 사람에게 교통

비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양천구, 전북 정읍시, 전남 남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통정책과 교육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실버마크-스마일실버 제작 보급'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하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차량 번호판의 색상(노랑색)을 다르게 하여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올해 고령 운전자 및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 예산을 두 배 늘린 309억원을 확보하였다.

우리사회의 문제는 사고 당시만 대책과 현안에 열을 올릴 뿐 시간이 경과하면 유아무야 사라지는 냄비현상이다. 우리 화순군은

이러한 시책들을 고령운전자 문제로만 보고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

우리 화순군은 최근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민선7기 WHO 고령친화도시, Unicef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화순군의 군민복지를 큰 패러다임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대가 빠르게 변동하고 있다. 화순군은 사회적 변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社 說

상습체납차량 단속 강화해야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는 지난주부터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일명 '대포차'가 단속 대상이다.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이 적발 대상이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이 6천882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2천26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5천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할 경우 변호관을 때 임시보관한다.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과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총액에 사용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 총액이 안 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한다.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천500여명, 경찰 200여명, 차량 탈출형 단속 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대 등을 동원된다.

자동차세나 과태료의 경우 체납을 한 사람이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납세체징수로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鼓 북 고 鼓瑟吹笙
瑟 큰거문고 슬
吹 불 취
笙 생활 생

▷ 뜻: 비파(琵琶)를 치고 저를 부니 잔치는 풍류(風流)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영농철 농기계 사전정비 생활화 해야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좁은 농로나 비탈진 경사로, 굽은 길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아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경운기의 경우 구동벨트

를 덮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진도 시 2차 사고의 위험이 높고, 야간 운행 시 뒤따르는 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2016-2018) 농기계사고는, 총 3002건이 발생해 이중 191명이 사망하고 712명이 부상당했다.

시기적으로는 파종기인 봄과 수확기인 가을(5월~10월) 사이

에 1917건(63.9%)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주행형 농기계 사고가 1392건(46.4%), 작업 중 갈리거나 정비·점검 중 신체의 일부가 끼이고 감기는 사고가 1610건(56.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좁고 굽은 농로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보조자로 하여금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농기계 정비는 작업 중이 아닌 작업 전후에 안전한 장소에서 시

동을 정지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운기는 엔진 회전부에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후면에 야광반사판이나 야광스티커 등을 부착해 뒤따르는 차량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기계는 자주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고 농번기 때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라 사용 전에 충분한 점검과 사용법 숙지가 중요하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안전센터장

湖南新聞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이신원
발행·편집인 김 부 사 장 최 산 순
총괄이사 이 홍 재 편집국장 강 서 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